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904호
(2026. 9.29)

‘글로벌 AI 기본 사회’의 실현

제904호

오일석 nusl2006@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천명하였다. 이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천명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의 '매력적 AI 핵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AI 기술 발전에 있어 중견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등이 따라 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균형을 맞추고, AI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AI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AI 기술 발전 모델이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응집하는 매력을 발산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키워드: 글로벌 AI 기본 사회,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글로벌 AI 허브, 공감과 연대의 힘, 글로벌 책임 강국

‘글로벌 AI 기본 사회’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K-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으로 ‘글로벌 AI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를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는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반하여 국가와 국가도 공동의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확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하였다.

이 대통령은 ‘K-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비전으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인류에게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I는 새로운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등과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따라가기 벅찬 변화의 속도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기준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앞세웠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혁명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SCR)‘ 실현을 앞당길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꿈꾸며, AI가 기후 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확장

이번 유엔 총회에서 천명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 AI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세계 AI 시장을 넓혀가는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며,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글로벌 AI 허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위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도 천명된 바 있다. 즉, 다양한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고,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AI 혁신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재가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만들어지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글로벌 AI 기본 사회’도 위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이미 언급한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이며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AI’와 연계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배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AI의 미래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매력적 AI 핵심 국가’를 통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 실현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천명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매력적 AI 핵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AI 기술 발전에 있어 중견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등이 따라 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균형을 맞추고, AI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AI에 대한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AI 기술 발전 모델이 공감과 연대의 힘을 응집하는 매력을 발산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 AI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와 시장은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국가가 혹은 시장이 우위를 점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AI 기술 발전은 AI가 인간 통제나 지배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지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제적 규범이나 레짐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태동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AI 생태계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AI 사용과 활용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거나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주도 폐쇄형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 사용에 대한 접근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은 AI 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의하여 AI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무력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즉, 시장 논리에 따라 AI 기술 개발이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함으로써 AI에 대한 규제나 통제라는 공공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AI를 통한 국가의 기본적 기능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혜택을 박탈하는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대한 지나친 시장 논리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차등과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실패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은 물론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

중국은 개방형 AI 모델을 통해 자국의 AI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여 AI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AI 발전을 주도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통제함에 따라 AI 기술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에 의한 시장의 주도와 지배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게 한다. 심지어 국민들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 및 감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사회적 다양성에 한계를 보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로 하여금 감시와 통제를 위한 AI 기술 발전에 더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의 '매력적 AI 핵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시장이 작다는 점과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로 AI 기술 개발이나 AI 규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시민 사회의 감독과 여론의 형성은 국가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제조 경쟁력과 해외 진출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국내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 시장이 해외에 연동됨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없다. 국내 기업들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가 주도해 왔던 AI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AI 기술 발전에 있어 국가와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AI 기술 개발 모델은 AI에 대한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중견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매력적 AI 핵심 국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AI 기술 발전의 혜택에서 어떤 국가나,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즉,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허용되는 'AI for ALL'이 허용되는 핵심 국가로서 매력을 발산하여야 한다. AI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접근권의 보장은 AI 접근 차별로 인한 새로운 계급의 형성과 계층의 차이를 고착화 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AI는 과거의 차별을 미래에 구현

하는 현실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해 AI의 사용이나 활용은 물론 AI 자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인류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AI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AI 기술 발전으로 AI가 모든 행동과 사고의 원천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독점이 저지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민주주의 회복력이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기반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과 난제 해결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의 투자와 인적 물적 교류·협력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창출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정보의 공유는 긴장과 충돌을 지양하고 기후위기, 보건, 식량 및 난민 문제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글로벌 AI 기본 사회'는,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한 AI 사용에서 나아가, 모든 인류가 선진 행정, 금융, 유통, 교통, 치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ESCR)'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고 피식민의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한 우리나라는 강대국 경쟁이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AI 허브'에 국제사회가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는 AI 기술 발전에 있어 글로벌 차원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자세로 '글로벌 AI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피지컬 AI를 연결하여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되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